



'새탐라문화가 있는 날' 시동
제주문예재단, 지원사업 공모

도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 탐라 문화가 있는 날'이 운영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새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새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문화 부문 역점 사업 중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과 연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권, 동부권, 서부권에 거점을 두고 지역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공연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공연기획사다. 컨소시엄으로 구성 후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 규모는 단체별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광주의 아픔

제주 예술인과 보듬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5·18민주화운동에서 가족을 잃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 온 열다섯 어머니들의 가슴 속 묻어있던 이야기들이 노래가 되어 흘러넘친다.

오는 5월 15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월어머니의 노래' 제주순회 공연이 열린다.

서귀포예당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 기획한 이 공연은 오월어머니들의 40여 년 한을 노래로 승화한 음악극이다. 1부 '망월의 노래', 2부 '오월의 노래'로 구성됐다.

제주4·3평화합창단, 제주오페라 연구소 합창단,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국악인이나 배우인 오정해 씨가 낭독배우로 출연해 어머니들의 사연을 몰입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사전 예약은 이달 25일 오후 7시부터 서귀포시민-티켓에서 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어 대사전' 편찬 부지하세월

당초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예산 뒷받침 미약
현재 목표의 절반 수준 집필... 웹사전 구축도 난망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당초 계획 상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완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종이 사전보다 현재 집필된 자료를 바탕으로 웹으로 검색할 수 있는 쌍방향의 개방형 사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또 담당 부서는 올 주중에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비(1억 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23일 제주도와 제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제주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제주어 보전과 전승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2009년 발간된 '개정정보 제주어사전'의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고 용례를 추가하는 작업과 사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진 삽화

등 보조자료 구축이 진행 중이다.

편찬 사업은 첫발을 뗀지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은 7억원(당초 계획예산은 2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또 제주학연구센터가 현재 집필한 표제어는 당초 계획 상의 목표인 4만 개 이상(어휘, 관용어, 속담 등)의 절반 수준인 2만1000개며, 수집한 사진 자료는 870여 장이다.

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어디서나 쉽게 제주어 사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웹사전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제주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목 관아 야간 관광명소 자리매김 박차

오는 5~10월 무료 야간 개장 '굴림야행' 진행
수문장 교대의식 확장·플리마켓 시범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 유산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목 관아를 문화유산 활용 대표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올해 야간 관람객 3만5000명 이상(지난해 2만3458명) 유치를 목표로 정기공연, 버스킹, 수문장 교대의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일 계획이다. >> 사진

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간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 '굴림야행'을 실시한다. 야간개장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월·화 제외)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본부는 올해 야간개장의 브랜드화를 위해 '굴림야행'이라 이름 붙이고 야간공연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나선다. '굴림야행'은 6개월간 제주목 관아 및 관덕정 일원에서 이뤄지는 야경산책, 야간공연, 버스킹, 수문장 교대의식, 체험 등을 총망라한 전통문화 복합행사다.

특히 올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굴림풍악 사천행사인 수문장 교대의식(거리행진→수문장교대의식→전통무예시연)의 거리행진 코스를 신설(관덕로~향사당~이아~소통협력센터)해 8월에 선보일 예정이며, 플리마켓도 시범 추진(2회, 7~8월)한다.

또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진행되는 정기공연 '굴림풍악'과 함께 하는 부대행사도 확대하고, 부쩍 늘고 있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외국인 한글이름 써주기 이벤트'와 외국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향판 <40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하르바님,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영 혹은 속담은 짙은 뜻이 이신 거 님수다. 고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이 생기게 뎡뎡하는 말이난마숨."
하르바지 골뎡, "경 생각 하엿구나, 또시 이런 말도 시저. '하늘을 뻘러봐사 뎡을 타주.' 영 혹은 속담이주. 또시 말을 고자면 무신 큰 성과를 거두쟁하민 그디엔 한한흔 노력광 준비가 서사만 뎡뎡하는 말이주."
으뎡이 골뎡, "하르바님, 경하난 누님이 물질 하쟁하민 느랑 태약을 손질 했구 나양. 경후곡 그물이영 죽은눈도마숨."
하르바지 골뎡, "경하엿주기게. 경하야사 짙은 바탕에서도 아무 탈우이 물질을 수 이시난게."

제주어 풀이

- *이신 거 : 있는 것. *담수다 : 님어요. *하고 나민 : 하고 나면. *뎡뎡하는 : 된다고 하는. *말이난마숨 : 말이니까요. *경 생각 하엿구나 :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뻘러봐사 : 봐야. *뎡을 타주 : 뎡을 타지. *고논 : 말하는. *또시 : 다시. *고자면 : 말하자면. *거두쟁하민 : 얻으려면. *그디엔 : 거기에는. *한한흔 : 많은. *서사만 뎡다 : 있어야만 된다. *하쟁하민 : 하려면. *했구나양 : 하고 있네요. *죽은눈(눈, 췌눈, 두눈, 죽세눈, 죽세눈) : <이름>물 속에서 헤엄을 칠 때 쓰는 안경의 하나로 아주 작은 것. *죽은눈도마숨 : 죽은눈도요. *경하엿주기게 : 그렇게 하고 있지. *경하야사 : 그렇게 해야. *짙은 바탕 : 깊은 바다. *탈우이 : 일없이. *물질을 할 수 이시난게 : 물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재만 화백

'신의 정원'으로 봄나들이... 제21회 방선문 축제

제주시 오라동자연문화유산보전회가 주최하고 오라동방선문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물한 번째 방선문축제가 이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방선문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영구춘화 꽃밭에서 신선님광 어화동등!'을 주제로 무사안녕 행복이원제, 제주목사 행차재연, 촛불기원,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부대행사로 신선 찾아가는 길(방선문 가는 숲길 걷기)을 비롯 시화전 예술거리 및 마에명 액자전시, 슬방을 소원달기, 신선·선녀 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문명숙 방선문축제위원장은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과 풍류의 맛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초대장을 띄웠다. 오은지기자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3회 변호사시험

강지수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 강승철(前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구소장) 모: 김경란(제주지방검찰청)

강수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태평양) 부: 강중만(한국도로공사 팀장) 모: 장연자(중등교사) 조부: 강중현(前 애월농협조합장) 조모: 양을성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상가리 가족 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변호사시험

강지수 (부: 강승철(前 제주도 공공정책연구소장) 모: 김경란(제주지방검찰청)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제주염통악파 우재(7세)손 종친회 회장 강상청 외 회원 일동

진주강씨 염통악마유파 가선대부 기초종친회 회장 강성호 외 회원 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13회 변호사시험

강지수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 강승철(前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구소장) 모: 김경란(제주지방검찰청)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애월읍 지회 회장 강성익 외 종친일동

진주강씨 애월읍청년회 회장 강동관 외 종친일동